

히타치제작소-미쯔비시중공업간 경영통합(2)

경영통합의 효과와 평가

히타치제작소-미쯔비시중공업 경영통합은 양사의 경영효율이나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자동차 등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 나아가, 일본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직결되는 보다 큰 차원의 영향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음

□ 이번 경영통합의 효과

- 금년 2월 신일철-스미토모금속공업 경영통합에 이은 이번 히타치-미쯔비시중공업의 대형 경영통합으로 앞으로 전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구체적인 통합의 형태와 효과를 지켜보게 될 것임.
- 시장에서는 지진재해 이후 부품조달난이 큰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재편에까지 파급되지 않을까 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음.
- 일각에서는 이번 대형 경영통합을 놓고, 한국과 같이 1개 업종에 대표적인 1개 기업이 존재하는 강한 산업구조의 실현을 지향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그런가 하면 일본경제가 엔高나 정책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거대 자본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평가도 있음.
- 아무튼 양사의 통합에 대하여 경영효율화의 관점에서 평가하기보

다는 일본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직결되는 보다 큰 차원의 영향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음.

□ 경영통합의 효과에 관한 주요 논점과 시사점

- 금년 2월의 철강산업분야에서 신일철-스미토모금속간 경영통합, 그리고 이번 기계/플랜트 분야에서 히타치-미쓰비시중공업간 경영통합은 효율성효과, 경쟁제한 효과, 합병심사 시 판단기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효과에 관한 논의가 가능함.
- 이중 특히 효율성 효과, 경쟁제한 효과와 관련해서는 과거 1970년 철강산업분야에서 야하타-후지산 대형합병에서는 효율성 향상을 중시하는 경제계와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문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경제학들 간 논쟁이 비등했음.
- 첫째는 효율성 효과임. 합병으로 기업수가 감소함으로써 시장경쟁이 완화되는 측면을 가리킴. 경쟁완화는 수량통제를 통한 가격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점에서 판매기업에게는 장점이 있음. 반면, 수요자는 높은 가격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 사회적 후생이 감소될 우려가 있음.
- 효율성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 2월의 신일철-스미토모금속간 합병이나 이번 미쓰비시중공업-히타치간 대형합병 모두 양사의 비교우위분야를 융합하여 상승효과를 촉진시키고, 생산성이나 기술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효율성 향상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고 이제까지의 합병심사에서는 효율성 감안이 한정적이었음. 그러나 신일철의

경우 탄생 후 신설 제철소에서 세계 최초로 전연속주조방식의 플랜트를 가동시키는 등 종래 기술보다도 효율성이 높은 연속주조 설비를 도입하여 철강생산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됨. 앞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한 효율성효과가 중시될 가능성이 있음.

- 일각에서는 앞으로 일본경제로서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기술혁신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새로운 수요를 자극하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의 창출과제를 강조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문부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독점과 비교하여 경쟁사업자 1-2인인 경우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확률이 한층 높아지나 그 이상 경합이 커지더라도 이노베이션에 좋은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이노베이션과 경쟁성과의 비선형적인 관계는 미국 등 다른 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바 앞으로 합병심사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둘째는 경쟁제한 효과로서 규모의 확대를 통하여 생산/판매/유통 부문의 슬림화를 기대될 수 있는 측면을 가리킴. 보다 고품질의 제품을 보다 싸게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함.
- 경쟁제한 효과의 판단과 관련하여, 과거 야하타-후지산 합병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용 레일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4개 제품분야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사업양도 등 문제해소 조치를 취했음.
- 그러나 최근 기술혁신이나 규모의 경제효과가 기업의 경쟁력 원천으로서 한층 중요해짐. 반도체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산업에서는 시장점유율은 효율성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할 수

있음. 효율성이 높아지면 판매가격의 저하여지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경쟁을 촉진시키는 측면이 있음.

- 1970년대 이후 큰 진전을 보인 산업조직론에서도 경쟁제한효과를 시장점유율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시장점유율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수요의 대체성이나 기업의 진입가능성과 같은 요소를 주목해야 한다는 논의가 우세해짐.
-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작년에 수평적인 가이드라인을 개정, 시장 점유율과 같은 기계적인 지표에 의하지 않고 경쟁제한효과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임.
- 세 번째는 합병심사 시 판단기준임. 경쟁정책에서는 수요자에 장점이 없는 경우, 합병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합병에 의해 기업이 판매가격 상승으로 수요자가 보게 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 합병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두 가지 주장에 차이가 없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에게 장점을 가져다주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를ダイナミック하게 창출해내는 원천은 기업의 이윤이라는 점에서 수요자측의 장점을 기업의 이윤을 고려한 사회적후생의 관점에서 합병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더욱이 해외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합병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합병의 장점을 국내 수요자들의 후생에만 한정시키는 주장은 해외진출을 지향하는 기업들의 의욕을 꺾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음.